

보도 희망 일시	배포 즉시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배성완 전화: 880-2985, 이메일: seongwan21@snu.ac.kr

배포일: 2024.9.12.(목)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,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견학 및 프로축구 경기 관람

- 개발도상국 출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, FC서울 vs 대전하나시티즌 프로 축구 관람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 신입생 21명(개도국 학생:20명, 한국 학생:1명)은 스포츠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9월 14일(토)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2024 K리그1 FC서울과 대전하나시티즌 경기를 관람한다.
- DTM 과정은 국제스포츠 행정가 역량 개발을 키우기 위해 교과 과정과 이와 연계된 스포츠 현장 견학, 특강, 한국문화 체험 등 비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. 금번 실시될 현장 견학은 9월에 갓 입학한 DTM 12기 신입생들의 첫 번째 비교과 활동이다.
-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FIFA 월드컵이 개최된 장소로,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. 견학에 참여하는 12기 학생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평소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선수 라커룸, 미디어룸, 워밍업실 등 주요 시설을 탐방할 수 있다. 선수들이 경기 당일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라커룸과 그라운드, 선수 벤치에서 특별한 체험도 예정되어 있다.

특히 라커룸에서는 실제 선수들의 유니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. 이번 견학을 통해 한국 축구 경기장의 내부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게 된다. 이는 스포츠 행정가로서 필수적인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. 이어 FC서울의 K리그1 경기 관람은 학생들에게 한국 프로축구 리그의 생동감 있는 운영 방식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.

- 서울대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2002 한일월드컵 개막식이 열렸던 서울삼암경기장은 사후활용이 가장 잘 되는 곳이며,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이 경기장 건설을 계기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지역개발의 성공사례이기도하다.”라고 말했다.

-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 20여 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.